

◆ Special Characteristics and New Application of the Oriental and Occidental Author Natation Tables

東西著者記號表의 특징과 그의 새 사용법에 대하여 (上)

李 載 喆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차 례

- 一. 서 언
- 二. 각표의 특징과 표의 택일
- 三. 기호 매기는 법
 - 가. 기호의 조직
 - 나. 기본기호의 구성
 - 다. 부차적기호의 구성
 - 라. 별치기호
- 四. 청구기호의 배열법
- 五. 기호 매김의 別法
 - 가. 자모 한자에 숫자기호를 합성하는 방식
 - 나. 숫자만에 의해 기호화하는 방식
- 六. 맺 는 말

一. 서 언

1970년 10월에 필자는 1958년판의 필자의 「동서저자 기호표」를 개정한 제3표, 제4표, 제5표 및 제6표를 교재용 등사물의 형태로 발표한 바 있다.¹⁾ 동표중의 제3표와 제5표는, 목록의 배열에서 된소리를 예사소리와 동일시해 「가나다순」으로 배열하는 도서관용으로 만든 것이요, 제4표와 제6표는 이를 별개의 단음(자모)시해 「가까나순」으로 배열하는 도서관을 위해 만든 것인데, 그후 필자는 계속해서 제7표와 제8표를 더 만들어 이에 추가시켰다. 마지막의 제7·8표는 된소리를 별개의 단음(자모)시 하되 그 자모의 배열위치를 전체 예사소리자음이 다 끝난 다음에 잡는 즉 기ㄷㅌㅍㅈㅊㅊ을 ㅎ다음에 놓는 이른바 「가하까순」 배열법을 위한 것이었다.

한편 필자는 필자의 새표를 발표하고 난 다음, 필자표의 구조원리에 관해서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논문제목들은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 저자기호표의 연구”²⁾,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한글의 기호삼기문제에 대하여”³⁾ 및 “한글자모의 생기빈도와 숫자에 의한 그

의 분석적 합성식기호화에 대하여”⁴⁾란 것이다. 이번의 이같은 필자의 「東西著者記號表」의 각표가 갖는 특징에 대한 논급과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다.

각 표의 특징과 사용법의 이해에는 자주 표의 대조가 필요하겠기에, 먼저 각표의 내용을 아래에 소개하고 다음 章부터 본론에 들어가기로 한다.

<제 1 표>

자음기호	모음기호
1 ㄱ	1 ㅏ
2 ㄴ	2 ㅑ(ㅑㅑ)
3 ㄷ	3 ㅓ(ㅓ)
4 ㄹ	4 ㅕ(ㅕ)
5 ㅂ	5 ㅗ(ㅗㅗㅗ)
6 ㅅ	6 ㅛ
7 ㅇ	7 ㅜ(ㅜㅜㅜㅜ)
8 ㅈ	8 ㅡ(ㅡ)
9 ㅎ	9 ㅣ

<제 2 표>

자음기호	모음기호
1 ㄱ	1 ㅏ
21 ㄴ	2 ㅑ(ㅑㅑ)
22 ㄷ	3 ㅓ(ㅓ)
23 ㄹ	4 ㅕ(ㅕ)
3 ㅂ	5 ㅗ
4 ㅅ	6 ㅛ(ㅛㅛㅛ)
5 ㅈ	7 ㅜ(ㅜㅜㅜㅜ)
6 ㅇ	8 ㅡ(ㅡ)
7 ㅊ	9 ㅣ
81 ㅌ	
82 ㅍ	
83 ㅊ	
84 ㅆ	
9 ㅎ	

1) 이재철, 동서저자기호표(東西著者記號表), 서울, 연세대학교도서관학과, 1970. 4장.
 2) —,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 저자기호표의 연구”, 圖書館學, 第1輯(1970年12月), p.1—58.
 3) —,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한글의 기호삼기 문제에 대하여” 人文科學(延大), 第24·25合併輯 (1971年5月), p.221—245.
 4) —, “한글자모의 생기빈도와 숫자에 의한 그의 분석적 합성식 기호화에 대하여”, 人文科學(延大), 第27輯 또는 28輯에 발표예정.

<제 3 표> (실용형 가표)

자음기호	모음기호 <small>ㄱㄷㅌ에 붙을 경우는 제외</small>	ㄱㄷ에 붙는 모음기호	ㅌ에 붙는 모음기호
ㄱ	ㅏ 1	ㅏ 1	ㅏ 1
ㄴ	ㅑ 2	ㅑ 2	ㅑ 2
ㄷ	ㅓ 3	ㅓ 3	ㅓ 3
ㄹ	ㅕ 4	ㅕ 4	ㅓ 4
ㅁ	ㅗ 5	ㅗ 5	ㅡ 5
ㄴ	ㅛ 6	ㅓ 6	ㅣ 6
ㄴ	ㅜ 7	ㅡ 7	
ㅇ	ㅡ 8	ㅣ 8	
ㅌ	ㅣ 9		
ㅌ			
ㅋ	87		
ㅌ	88		
ㅌ	89		
ㅎ	9		

<제 5 표> (아이디얼형 가표)

자음기호	모음기호 <small>ㄱ다음에 붙을 경우는 제외</small>	ㅌ에 붙는 모음기호
ㄱ	ㅏ 2	ㅏ 2
ㄴ	ㅑ 3	ㅑ 3
ㄷ	ㅓ 4	ㅓ 4
ㄹ	ㅕ 5	ㅓ 5
ㅁ	ㅗ 6	ㅣ 6
ㄴ	ㅡ 7	
ㄴ	ㅣ 8	
ㅇ		
ㅌ		
ㅌ		
ㅋ	87	
ㅌ	88	
ㅌ	89	
ㅎ	9	

<제 4 표> (실용형 가표)

자음기호	모음기호 <small>ㄱㄷㅌ에 붙을 경우는 제외</small>	ㄱㄷ에 붙는 모음기호	ㅌ에 붙는 모음기호
ㄱ	ㅏ 1	ㅏ 1	ㅏ 1
ㄴ			
ㄴ	ㅑ 2	ㅑ 2	ㅑ 2
ㄷ			
ㅌ	ㅓ 3	ㅓ 3	ㅓ 3
ㄹ			
ㅁ	ㅕ 4	ㅕ 4	ㅓ 4
ㄴ			
ㅌ	ㅗ 5	ㅓ 5	ㅡ 5
ㄴ			
ㅌ	ㅛ 6	ㅡ 6	ㅣ 6
ㅇ			
ㅌ	ㅜ 7	ㅣ 7	
ㅌ			
ㅌ	ㅡ 8		
ㅋ	87		
ㅌ	ㅣ 9		
ㅌ	88		
ㅌ	89		
ㅎ	9		

<제 6 표> (아이디얼형 가표)

자음기호	모음기호 <small>ㄱ다음에 붙을 경우는 제외</small>	ㄱㄷ에 붙는 모음기호	ㅌ에 붙는 모음기호
ㄱ	ㅏ 2	ㅏ 2	ㅏ 2
ㄴ			
ㄴ	ㅑ 3	ㅑ 3	ㅑ 3
ㄷ			
ㅌ	ㅓ 4	ㅓ 4	ㅓ 4
ㄹ			
ㅁ	ㅕ 5	ㅓ 5	ㅓ 5
ㄴ			
ㅌ	ㅗ 6	ㅡ 6	ㅣ 6
ㄴ			
ㅌ	ㅛ 6	ㅣ 7	
ㅇ			
ㅌ	ㅜ 7		
ㅌ	ㅡ 8		
ㅌ			
ㅋ	87		
ㅌ	88		
ㅌ	89		
ㅎ	9		

<제 7 표> (실용형 하표)

자음기호	모음기호 ㄱ ㄷ ㅌ에 붙을 경우 는제의	ㄱ ㄷ에 붙는 모음기호	ㅌ ㅍ에 붙는 모음기호
ㄱ 1	ㅌ 1	ㅌ 1	ㅌ 1
ㄴ 19			
ㄷ 2	ㅌ 2	ㅌ 2	ㅌ 2
ㄹ 29			
ㄴ 3	ㅌ 3	ㅌ 3	ㅌ 3
ㄷ 4			
ㅌ 5	ㅌ 4	ㅌ 4	ㅌ 4
ㅇ 6			
ㅌ 7	ㅌ 5	ㅌ 5	ㅌ 5
ㅌ 76			
ㅌ 77	ㅌ 6	ㅌ 6	
ㅌ 78			
ㅌ 79	ㅌ 7	ㅌ 7	
ㅌ 8			
ㅌ 9	ㅌ 8	ㅌ 8	
ㅌ 96			
ㅌ 97	ㅌ 9		
ㅌ 98			
ㅌ 99			

<제 8 표> (아이디얼형 하표)

자음기호	모음기호 ㅌ ㅍ에 붙을 경우는제의	ㅌ ㅍ에 붙는 모음기호
ㄱ 1	ㅌ 2	ㅌ 2
ㄴ 19		
ㄷ 2	ㅌ 3	ㅌ 3
ㄹ 29		
ㄴ 3	ㅌ 4	ㅌ 4
ㄷ 4		
ㅌ 5	ㅌ 5	ㅌ 5
ㅇ 6		
ㅌ 7	ㅌ 6	
ㅌ 76		
ㅌ 77	ㅌ 7	
ㅌ 78		
ㅌ 79	ㅌ 8	
ㅌ 8		
ㅌ 9		
ㅌ 96		
ㅌ 97		
ㅌ 98		
ㅌ 99		

二. 각표의 특징과 표의 택일

필자의 「東西著者記號表」를 채용키로 한 도서관에서 제일먼저 할 일은 제1표부터 제8표까지의 표중에서 자기 도서관의 目錄排列法과 整理工程 등의 특성에 맞는 어느 한 표를 택일하여 자기도서관용으로 확정짓는 일이다.

제2표는 제1표의 개정표이며, 제3표부터 제8표까지의 표는 각각 제2표를 개정한 독립된 표이다. 따라서 현재의 필자표 입장에서는, 제1표와 제2표는 폐기된 셈이 된다. 그러나 제1표 또는 제2표를 이왕부터 써내려 오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새로표로 전환하지 말고 종전의 표를 계속 유지하여 주기 바란다. 그나름대로의 순차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1표는 類音式記號法 (soundex coding)⁵⁾의 원리에 합치되는 기호법이다. 동표에 의한 기호화는 현행의 자모순배열을 기하기 어려운 단점도 지니고 있으나, [k] [p] [t] [t]음을 갖는 외래어에 대해 어느 방식의 翻字法에 따라도 들쭉이후의 경우는 한자리에서 검색될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⁶⁾ 예를 들어 “Starlin”에 대해 “스탈린”, “스팔린”, “스달린”, “사트우”에 대해 “사토오”, “사또오”, “사도오”의 표기중 어느 표기법에 따라도 상관 없이 같은 기호하에서 찾아지는 좋은 점이 있다. [k] [p] [t] [t]의 한글화의 다양에 따른 검색방식의 다양을 극복하기 위하여 「ㄱㄱ」, 「ㄷㄷㅌ」, 「ㄷㅌㅌ」, 「ㅌㅌㅌ」을 기입어의 첫자부터 각각 동일시해서 배열한 사전의 예로 襄亮瑞박사의 「韓國外來語辭典」의 배열법이 있다.⁷⁾ 따라서 목록배열에서 그 외래어사전과 같은 한글배열법을 취하는 도서관이 있다면 필자의 제1표를 채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2표는, 제1표가 [k] [p] [t] [t]음을 갖는 외래어의 표기방식의 다양에서 오는 검색방식의 다양화를 해결하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현행의 일반배열법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현행의 일반화된 배열법에 맞추어 시정한 것이다. 이 제2표는, 제3표이후의 표와는 달리, 모음기호표가 단 한벌 밖에 없고, 자음기호도 그것이 두자리 숫자기호를 갖는 것일 경우, 그 두제자리 기호를 1부터 배정해나갔기 때문에 (예 : ㄴ은 21, ㄷ은 22, ㄹ은 23; ㅌ은 81, ㅋ은 82, ㅌ은 83, ㅍ은 84), 助記性면에서는 그의 개정표인 제3표이하의 어느 표보다도 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제2표는 자음과 모음의 합성한 결과 24부터 29까지와, 85부터 89까지의 숫자기호를 영영 유희번호로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오며, 빈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ㄷ”과 “ㅌ”이

5) Charles P. Bourne, Methods of Information Handling, New York, Wiley, 1963, p.48-49.

6) 이재철, “동서저자기호법의 연구”, 도협월보, 1958년 7·8월號, p.9.

7) 襄亮瑞, 韓國外來語辭典, 서울, 宣明文化社, 1970. 다만 동사전의 배열법에서 필자의 제1표의 배열순위와 다른 점은 필자 표에선 “ㄷ”을 “ㄴ”과 같이 類音化하여 한 기호를 준데 대하여 동사전에서는 이를 독립시킨 점이다.

두자리의 숫자기호를 가지고 있어 이에 모음기호를 붙일 경우 세자리 기호를 갖게되는 흠이 있다. 제2표의 이들 흠을 기운 것이 제3표이후의 표이다.

제3표이후 제8표까지의 표는, 각각 동등하게, 제2표의 개정표이다. 바꾸어 말하여 제4표가 제3표의 개정표가 아니며, 제5표가 제4표의, 제6표가 제5표의, 제7표가 제6표의, 제8표가 제7표의 개정표가 아니요, 각각 독립적으로 제2표의 개정된 것이다.

제3표이후의 개정표가 제2표에 비해 특별히 달라진 점은, 제2표에서의 유희번호 24부터 29까지를 활용시키기 위하여 자음의 기호배정을 재조정하고, 이에 맞춰모음 기호표를 제5·8표의 경우 두벌, 제3·4·6·7표의 경우 세벌로 늘린 점이다. 두자리 기호를 가졌던 “ㄷ”과“ㄷ”이 한자리 기호를 갖게 된 것도 특이한 점의 하나이다. 이로써 전체적인 면에서 제3표이후의 표는 제2표에 비해 7분의 1정도 기호의 길이가 단축되어, 기호의 짙막성 유지면에서 진일보하였다고 믿는 것이다. 다만 개정표는 기호의 짙막성을 더 갖게 된 대신, 모음기호표가 한벌(제 3·4·6·7표는 두벌) 더 늘어 언뜻 보기에 좀 복잡하게 된 것 같지만, 그것은 얼마간의 익힘으로 곧 해소될 것이다. 필자는 그의 확인으로, 작년(1971년) 제2학기 延大의 「분류와 목록학」과정에서 동 저자 기호표에 관해 강의하고, 일주일후, 동표중 제5표를 암기해서 적는 문제를 시험문제에 포함시켜 시험을 치르게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33명의 동학반에서 32명의 학생들이 하나의 틀림도 없는 정답을 내었고, 나머지 한 학생만이 일부의 오답을 내었는데, 그나마도 틀린곳이 두벌의 모음기호표를 가진 모음부가 아니고 자음부의 ㄱㅌ표에 대한 세 기호만이었던 것이다.

새로 개정된 제3표부터 제8표까지의 각표간의 차이와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3표, 제4표 및 제7표는, 번호확정의 作業工程에 있어, 주로 표에 의해서만 저자기호를 매기고 서가목록을 들추어 그 항목내의 전후관계를 일일이 참조해야면서 번호를 매기지 않는 도서관용으로 만든 것이다. 이표들은 실용 서가목록 내의 전후관계를 확인해서 번호를 매기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어(기입어)는 다른 표에 의한 번호는 같을 경우, 먼저 들어온 저자에 그 번호 확보의 기득권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저자가 자모순으로는 앞서는 것이라 할지라도 번호 추가의 개별관계로 부득이 뒤로 놓여지는 씨스틀을 위한 것이다. 곧 “김장수”에 대해 김71”라 주고 난다음, 같은 항목에 “김자림”의 저작이 들어왔을 경우, 자모순으로는 “김자림”이 “김장수”보다 앞서지마는 부득이 “김자림”에 대해 “김713”이라 매겨 뒤에 놓는 씨스틀

을 말하는 것이다. 제3·4·7표를 “실용형”이라 명명한 것은, 이러한 씨스틀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자모순 배열은 기하기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는 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붙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제5표, 제6표 및 제8표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서가목록내에서 전후관계를 대조하여 끝내 엄밀한 자모순 배열을 기할 수 있는 “아이디얼”한 씨스틀이다. 이들 표에 “아이디얼형”이란 명칭이 붙은 것은 이 때문이다. 앞에서 든 예의 저자기호를 이들 아이디얼형의 씨스틀에서는 “김장수”에 대해 “김72”라 매기고, “김자림”에 대해서는 “김715”이라 매겨 먼저 들어온 “김장수”(김72)보다 나중에 들어온 “김자림(김715)을 앞서 놓아 자모순을 유지케 한다.

새로 개정된 6개의 표가 作業工程面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실용형”과 “아이디얼형”으로 양등분 되듯이, 동표들은 排列面에서 「가나다순」과 「가까나순」과 「가하까순」으로 3등분 된다. 여기서 「가나다순」이라 함은 된소리를 예사소리와 동일시하여 함께 배열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제3·5표가 이에 해당되며 “가까순”이라 함은 된소리를 독립된 자모로 보고 이를 별도로 배열하는 「가…깡, 까…깡, 나…깡」의 배열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제4·6표가 이에 해당되며, 「가하까순」이라 함은 된소리를 별개의 자모로 보는 것은 전자와 같되 이를 예사소리의 전체자모가 다 배열된 다음에 놓는 배열순, 즉 「가…깡, 까…깡」순의 배열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제7·8표가 이에 해당된다. 각표의 명칭으로 붙은 「가표」의 명칭은 「가나다순표」를, 「까표」는 「가까나순표」를, 「하표」는 「가하까순표」를 각각 약칭한 말이다.

된소리자음(ㄱㅌㅍㅊㅌ)의 배열은 사전계나 목록계의 배열법이 아직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현상에 비추어, 저자기호표도 이에 대응해서 수종 만들어 놓고 각 도서관으로 하여금 자기 도서관에서 채택한 목록카드 배열법과 합치되는 것을 골라 쓰도록 한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필자가 이제까지 발전시킨 제1표부터 제8표까지의 각표는 목록의 배열법과 기호매김의 작업공정에 맞추어 택일해 쓸 수 있도록 한 각각 독립된 표이다. 이하 각표별로 이상에 말한 바 그 특징을 요약해 적기로 한다.

<제1표>

가) 일종의 類音式記號法 (soundex coding)에 의하여 만들어진 표이다.

나) [k] [p] [t] [t] 음을 갖는 외태어음을, [k]는 ㄱㅌㅍ, [p]는 ㅍㅍㅍ, [t]는 ㄷㅌㅌ, [t]는 ㄷㅌ의 어느 방식으로 번차하여도 상관없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점이 있다.

8) 이재철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 저자기호표의 연구”p.46—50(제1장 된소리의 배열방식을 달리하는데서 야기되는 문제점)

다) 다만 엄격한 의미에서의 현행의 통용된 가나다순의 배열을 기할 수 없는 것이 흠이다. 그러나 襄亮瑯琊박사의 「韓國外來語辭典」의 말수차례와 같은 자모배열법을 취하는 도서관용으론 최적격의 것이다.

<제2표>

가) 된소리를 예사소리와 동일시하는 「가나다순」 배열용이다.

나) 모음기호표가 단별이기 때문에 제3표이하의 어느 표보다도 助記性이 더 있다 하겠다.

다) 그러나 자음과 모음기호의 합성후에도 24~29와 85~89의 두자리 기호의 유희기호가 생기고 기호의 짝막성을 유지하는데 결함이 있다.

라) 複號化(decoding)면에서 제5·6·8표보다 강하다. 그 이유는 제2표는 제3·4·7표의 실용형표와 마찬가지로, 들어온 순차관계로 엄격한 자모순배열이 깨어지는 경우에도 그에 상관없이 표에 의한 숫자 기호의 값을 끝까지 지키기 때문이다.(三나2.10 참조)

<제3표>

가) 된소리를 예사소리와 동일시하는 「가나다순」 배열용이다.

나. 기호매김의 工程에 있어 탁상의 저자기호표에 의해서만 기호를 매기고 별로 서가목록을 참조하여 유일번호를 확정하지 않는 도서관용이다.

설혹 유일번호를 주는 경우에도 저자(기입어)는 다른데 표에 의한 번호가 같을 경우, 먼저 들어온 저자(기입어)가 자모순으로 앞선다 할지라도 번호추가에 의한 개별관계로 부득이 뒤로 놓이는 씨스름이다(三나2.10 참조)

다) 번호합성의 결과 제2표와 같은 유희번호가 생기지 않으며, 제2표보다 번호의 짝막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제4표>

가) 된소리를 별개의 자모로 보는 「가까나순」 배열용이다.

나) 제3표의 “나”항의 설명과 같이 번호매김의 工程을 탁상의 표에 의해서만 그치고, 서가목록을 일일이 확인하여 매기지 않는 도서관용이다. 설혹 서가목록을 확인하여 전후관계를 고려 유일번호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그 저자의 들어온 순차에 따라 반드시 엄격한 자모순배열을 기하기 어려운 씨스름이다(三나2.10 참조)

다) 번호합성의 결과 제2표와 같은 유희번호가 생기지 않으며, 제2표보다 번호의 짝막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제5표>

가) 된소리를 예사소리와 동일시하는 「가나다순」 배열용이다.

나) 표에 의해 매김 번호를 가지고 반드시 서가목록에서 동번호이저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 전후관계를 참작하여 유일번호를 형성하는 도서관용으로 만든 것이다. 자모순으로 앞서는 저자(기입어)가 설혹 뒤에 들어왔다 치더라도 제자리를 찾아 완전한 자모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 씨스름이다.(三나2.10 참조)

다) 대신 이 제5표 및 제6·8표의 아이디어표들은 複號化면에서 제2표 및 제3·4·7표의 실용형표보다 약간 약한 점이 있다. 그 저자(기입어)가 뒤에 들어왔지만 자모순으로는 전에 들어온 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을 경우 이 씨스름에서는 위의 판 자음기호를 차용하여 매기는 수가 간혹 있기 때문이다.

라) 제2표와 같은 유희번호가 생기지 않으며, 제2표보다 번호의 짝막성을 더 유지할 수 있다.

<제6표>

가) 된소리를 별개의 자모로 보는 「가까나순」 배열용이다.

나) 그 이외의 특징은 제5표와 같다.

<제7표>

가) 된소리를 별개의 자모로 보되, 그것들을 음다음에 놓는 「가하까순」 배열용이다.

나) 그밖의 특징은 제3·4표와 같다.

<제8표>

가) 된소리를 별개의 자모로 보되, 그것들을 음다음에 놓는 「가하까순」 배열용이다.

나) 그밖의 특징은 제5·6표와 같다.

신설도서관 입장에서 상기표종 어느표를 採擇하는 것이 좋으냐고 필자보고 굳이 묻는다면, 필자는 제5표를 推獎하고 싶다. 그 이유는 첫째 “擲軍”을 표기할 때 “장군”으로 표기하든 “장군”으로 표기하든, 또 “ナカムラ(中村)를 한글로 표기할 경우 “나가무라”로 표기하든 “나까무라”로 표기하든 관계없이 기호화의 결과가 한자리에 모이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며,⁹⁾ 둘째 “아이디얼형표”에 의한 기호화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음절단위의 자모순에 부합되는 배열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의 採擇問題는 자기 도서관의 目錄排列政策과 기호매김의 作業工程의 限度 등을 고려하여, 자기 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그 도서관자신이 결정할 문제인 것이다.

三. 기호 매기는 법

가. 기호의 조직

저자기호는, 넓은 의미에서, 基本記號와 副次的記號로 이루어진다. 基本記號는 표에 의해서 매겨진 기호

9) Ibid. p.48.

임의로 붙이는 숫자중 초두에 “북관숫자”를 매기지 아니하고, 처음서 부터 “1”이나 “2”를 매기는 것이 좋은 것은, 동명이인이나 동명이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입어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예 : 김윤식(金允植)	김66
김윤식(金潤植)	김661
김기석(金基錫) 1905—	김18
김기석(金基錫) 1926—	김181
세계문학전집(을유문화사) 세 14 또는 세'14	
세계문학전집(정음사) 세 142 또는 세'142	
한국도서관학회	한16
한국도서관협회	한161

2.10 제일먼저 들어온 것보다도 자모순으로 앞서는 대상어가 들어왔을 때, 제5·6·8표의 “아이디얼형”표를 채용한 도서관에서는 그 마지막 숫자기호의 바로 위의 모음기호를 차용하여 매기되 이에 “7”보다 하위의 임의 숫자하나를 덧붙인다. 그러나 그 마지막 모음 기호가 “ㅏ”에 대한 “2”일 것일 경우에는 그 보다 앞번호인 “1”를 취하되 “1”로 그치지 말고 언제나 이에 임의의 숫자를 상기 2.9항의 요령으로 덧붙여 매기는 것이 좋다.

예 : 김도희	김25
김도기	김248
김장수	김72
김자림	김715

그러나 제1·2표, 및 제3·4·7표의 실용형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기한 바와 같이 제일먼저 들어온 것보다 자모순으로 앞서는 대상어가 들어왔다 치더라도, 제일 먼저 들어온 것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표상의 모음기호를 고수하여 상기 “2.9항”의 요령으로 개별한다. 따라서 이씨스름에서는 자연히 엄격한 의미의 자모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하기예의 기호화는 제3표에 의함)

예 : 김도희	김25
김도기	김253
김장수	김71
김자림	김713

2.11 위와 같은 임의의 숫자 추가에 의해 번호의 앞뒤가 꼭 채워진 연후 또다시 그 사이에 끼는 대상어가 들어 왔을 경우에는 또 한자리의 숫자를 임의로 첨가하여 구분한다.

예 : 김동리	김255
김동길	김254
김동래	김2545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필요에 따라 무한히 전개해 나간다.

2.12 모음까지를 기호화하여 합성하여도 대상어는 다른데 같은 번호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의 개별을 상

기 2.9항부터 2.11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뜸 한자리를 늘려 개별하려고 하기 전에 같은 자리수(제단)내에서 모음의 합성에도 불구하고 빈번호(유티번호)로 남는 것은 없나의를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그런 빈번호가 있을 경우 이를 그 임의의 숫자로 활용하여 쓰는 것이 좋다.

그런 예로, 아이디얼형표(제5·6·8표)를 채용한 도서관에서는, 제5표는 ㄴ·ㄷ·ㄹ·ㅁ·ㅂ·ㅅ·ㅇ·ㅎ, 제6표는 ㄴ·ㄷ·ㄹ·ㅇ·ㅎ, 제8표는 ㅁ·ㅂ·ㅅ·ㅇ에 각각 모음기호를 합성할 경우, 그표에 모음기호는 “8”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9”란 번호는 빈번호로 남게 되는데, 이를 임의의 숫자로 활용해 쓰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예 : 조미자	조38
조민철	조39
조민제	조385

또한 예로, 한국어와 일본어(인명포함)에 대한 기입어로 거의 쓰이지 않는 음절에 대한 번호—예 : 아이디얼형표에 의한 28(디), 34(머), 37(브), 48(브); 실용형표에 의한 24(머), 26(되), 29(디), 33(머), 38(브), 46(브), 48(브), 54(셔), 56(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번호를 그임의의 숫자로 가급적 활용하여 쓰는 것이 기호매김의 요령이다.

	아이디얼형표	실용형표
예 : 조무남	조36	조37
조문하	조37	조38
조문수	조365	조375

2.13 일본인명을 한국어음으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일본음으로 읽어 표기하는 도서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숫자기호화의 대상을 물체자의 자음에 한하여 매기고, 同番號異記入이 나왔을 경우에는 임의의 숫자를 첨가하여 개별하는 것이 좋다. (「일본현대작가기호표」 참조)

예 : 야마카타	야3
야마모토 시게루	야35
야마카와	야33
야마모토 아끼라	야37

2.14 대상어(기입어)의 첫째자(음절)가 아래와 같은 받침을 가진 것은 물체자에 대한 기호를 표에 의해 매기지 아니하고, 애초부터 임의의 숫자로 조절하여 개별해 나가는 것이 좋다.

ㄷ,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ㅎ의 외받침과	
ㄱ, ㅋ, ㆁ, ㆅ, ㄷ, ㅌ, ㅍ, ㅈ, ㅊ, ㅍ, ㅍ, ㅍ 등의 쌍받침	
예 : 셋별회	셋5
셋바람회	셋3
젊은 세대를 위한 교양전집	젊5
젊은이를 위한 사상전집	젊7

(차호에 계속)